

보도일시	2023년 12월 21일(목) 08:00 이후	배 포 일	2023년 12월 20일(수)
담당부서	은행연합회 전략기획부 은행연합회 여신금융부	책임자	박진우 부장(T.3705-5247) 박영상 부장(T.3705-5704)
		담당자	김수연 팀장(T.3705-5287) 배진호 팀장(T.3705-5224)
	금융위원회 은행과	책임자	강영수 과장(T.2100-2950)
		담당자	김경호 사무관(T.2100-2953)
	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	책임자	정우현 국장(T.3145-8020)
		담당자	김재갑 팀장(T.3145-8050)

은행권은 역대 최대인 2조원+ α 규모의 민생금융지원방안을 통해 자영업자·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지원합니다.

- 은행권은 자영업자·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“2조원+ α ” 지원 발표
- 개인사업자 약 187만명에게 1.6조원(인당 평균 85만원)을 이자환급(캐시백) 하고, 기타 취약계층을 위해 0.4조원을 지원
- '24.2월부터 이자환급을 개시하여 3월까지 최대한 집행
- 은행연합회는 향후 매분기 집행실적을 취합·점검해 발표

1 개 요

-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사원은행 은행장들은 '23.12.21.(목) 김주현 금융위원장,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, 자영업자·소상공인 등을 위한 2조원+ α 규모의 「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」을 발표하였다.

< 간담회 개요 >

- 일시/장소 : '23.12.21.(목) 08:00~09:00 / 은행회관 14층 중회의실
- 참석자
 - (은행권) 은행연합회장, 20개 사원은행장
 - * 산업, 농협, 신한, 우리, SC제일, 하나, 기업, 국민, 한국씨티, 수출입, 수협, 대구, 부산, 광주, 제주, 전북, 경남, 케이, 카카오, 토스
 - (금융당국) 금융위원장, 금융감독원장

2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

- 「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」은 은행권이 지난 11월 20일과 27일 「금융위·원-금융지주회사 간담회」 및 「금융위·원-은행장 간담회」를 통해 자영업자·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공동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기로 한데 따른 후속조치로, 11월 하순부터 은행권 TF*를 통해 신속한 논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되었다.

* 「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 마련 TF」(23.11.29~12.20.)

- (구성) 은행연합회 및 20개 사원은행(금융위·금감원 논의 지원)

- 본 방안은 은행의 ‘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’에서 코로나 종료 이후 높아진 ‘금리부담의 일정수준’을 ‘직접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, 체감할 수 있는 방안’을 마련한 것으로, 그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- **[참여은행 및 재원조달]** 본 방안은 국내 20개 모든 은행의 참여를 통해 “2조원+α” 규모로 추진된다.

- 국책은행인 산업·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8개 은행*이 최소 2조원을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배분하여 분담기로 하였으며, 산업·수출입은행은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적 지원(+α)을 하기로 하였다.

* 농협, 신한, 우리, SC제일, 하나, 기업, 국민, 한국씨티, 수협, 대구, 부산, 광주, 제주, 전북, 경남, 케이, 카카오, 토스

- “2조원+α”의 지원액은 자영업자·소상공인 등 취약계층과 취약계층 지원기관 등에 대한 지원비용으로 활용될 예정이며,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된 은행권 상생금융활동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이다.

□ **[지원 프로그램]** 본 방안은 “공통 프로그램”과 “자율 프로그램”의 투 트랙(two-track)으로 추진된다.

○ **(공통 프로그램)** 은행권은 공통 프로그램으로서 '23.12.20일 기준(발표전일 마감 기준)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이자환급(캐시백)을 시행하며,

－ 이자환급 금액은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1년간 4% 초과 이자 납부액의 90%(감면율)를 지급하게 되며, 차주당 300만원을 총 환급한도로 한다.

* (예) '22.12.21.이전 최초 대출자의 경우 캐시백 대상 이자는 '22.12.21.~'23.12.20.
'23.4.1. 최초 대출자의 경우 캐시백 대상 이자는 '23.4.1.~'24.3.31.

(예) 대출금 3억원, 대출금리 5%, '23.12.20. 기준 이자납입기간 1년 경과
－ 캐시백 금액 = $\min[2\text{억원} \times (5\% - 4\%) \times 90\%, 300\text{만원}] = 180\text{만원}$

－ 다만, 은행별로는 자행의 건전성, 부담여력 등 감안하여 일부 지원기준을 자율적으로 조정*할 수 있으며, 부동산임대업 대출 차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.

* (예) 지원금액 한도 300→200만원, 감면율 90→70% 등

－ 은행권은 금번 공통 프로그램을 통해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채원 2조원의 약 80%인 1.6조원 수준의 자금을 지원 (인당 평균 지원액 85만원)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.

○ **(자율 프로그램)** 은행권은 1.6조원의 이자환급을 시행하고 남은 4천억원(=2조원-1.6조원)을 활용하여 자영업자·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다.

－ 예컨대, 이자환급 외 방식(전기료, 임대료 등 지원)의 소상공인 지원, 자영업자·소상공인 이외의 취약계층 지원, 보증기관 또는 서민 금융진흥원 출연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지원을 전개해나갈 예정이다.

- **[지원시기]** 은행권은 보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본 방안 발표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은행별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.
 - 구체적으로 공통 프로그램의 경우 '24.1월 중순까지 은행별 집행계획 수립을 완료하고, '24.2월부터 이자환급 지원을 개시하여 3월까지 최대한 집행함으로써 지원의 체감도를 높일 예정이다.
 - 또한, 자율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'24.1분기 중 은행별 집행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연내 속도감 있게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.
- 은행연합회는 향후 분기별로 금번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른 은행별 집행실적을 취합·점검하여 발표함으로써 금번 방안이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.

[별첨] 은행연합회장, 금융위원장 및 금융감독원장 말씀자료 각 1부. 끝.

이 자료는 은행연합회(<http://www.kfb.or.kr>), 금융위원회(<https://www.fsc.go.kr>) 및 금융감독원(<https://www.fss.or.kr>) 홈페이지의 '보도자료'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.

[붙임]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 관련 Q&A

〈Q1〉 배분기준을 당기순이익으로 정한 이유는?

- 최근 국민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은행의 당기순이익이 크게 증가하면서 은행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행 요구가 증대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, 당기순이익을 배분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
- 또한, 금융시스템의 중심이 되는 은행에 있어 건전성은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, 사회적 책임 이행도 이러한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당기순이익이 배분기준으로 바람직

〈Q2〉 은행권 지원액을 2조원으로 정한 이유는?

- 각 은행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은행권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최대한 부합할 수 있는 수준을 당기순이익의 10%로 판단
- 한편, 2023 회계연도가 종료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2023년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연환산한 2023년도 추정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지원금액을 산출함에 따라 2조원 수준의 지원액이 산출됨

〈Q3〉 은행들은 어느 정도 부담을 하는 것인지?

- 정확한 규모는 은행별로 산출해 봐야 알 수 있겠지만, 5대 은행 기준으로는 2천억원~3천억원대 수준으로 예상함

〈Q4〉 공통 프로그램과 자율 프로그램으로 나눈 이유?

- ☐ 코로나19로 인한 영업부진에 이어 고금리·고물가 충격에 직면한 자영업자·소상공인들을 집중적·우선적으로 지원하자는 것이 금번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의 일차적인 목표
- ☐ 이에 따라 모든 은행이 참여하는 공통 프로그램으로 자영업자·소상공인을 우선 두텁게 지원하고,
 - 이후 남은 재원으로 자영업자·소상공인 이외의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을 은행 자율적으로 다양하게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지원 프로그램을 구분한 이유임

〈Q5〉 자율프로그램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인지?

- ☐ 은행별 사정에 맞게 캐시백 이외의 방식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거나, 소상공인 이외 취약계층 지원, 보증기관·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고객들을 지원할 예정임

〈Q6〉 3월까지 최대한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, 얼마나 집행될 것으로 보는지?

- ☐ 은행별 구체적인 집행계획이 나와야 알 수 있겠지만, 집행에 별다른 차질이 없다면 '24.3월까지 약 50% 수준은 집행될 것으로 예상함

〈Q7〉 개인사업자만 지원하는 이유는?

서민·취약계층과의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?

- ☐ 코로나 이후 금리상승과 경기부진으로 인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자영업자·소상공인이라고 판단되어 우선순위로 지원하게 되었음
- ☐ 서민·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프로그램이 있으며,
 - 은행권도 공통 캐시백 프로그램 이외의 남은 재원을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서민·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을 모색할 예정

〈Q8〉 금리 4% 이상, 대출금액 2억원, 지원금액 300만원 한도로 정한 이유?

(5%, 1억원, 150만원 이야기가 있었는데 확대된 이유는?)

- ☐ '23년 중 취급된 개인사업자대출의 금리대별 고객 분포*와 대출금액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에게, 보다 어려운(고금리) 소상공인 중심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하였음

* 금리 5% 대에 집중(대출액 75%, 차주수 60% 이상)

〈Q9〉 캐시백 대상이 되는 1년간 납부한 이자의 의미는?

- ☐ 지원대상이 기준일 직전 1년간 기납부한 대출이자를 의미
- ☐ 기준일 직전 이자 납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'24년중 납부한 이자가 포함될 수 있음

〈Q10〉 금리 4% 초과분의 100%가 아닌 90%만 환급해주는 이유는?

- 실질금리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90% 환급방식을 선택하였음
 - 4%를 기준선으로 하여 초과되는 금리부분 전체를 환급할 경우, 신용도 등을 통해 산정되는 은행별 금리체계와 무관하게 지원대상 차주들이 동일한 금리를 적용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

**〈Q11〉 별도의 신청 절차가 있는지?(보이스피싱 문자 우려 등)
한도 1.6조원 소진 전에 선착순으로 신청해야 하는지?**

-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른 이자 캐시백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하고,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대상차주에 대해 캐시백 등을 지원할 예정
- 소상공인이 캐시백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❶ 일정 기간 내에 신청을 하거나, ❷ 추가로 대출을 받을 필요는 없으므로 전자통신금융사기에 유의하시기 바람. 끝.